

음성치료에 반응이 없는 기능성 발성장애 환자의 보툴리눔독소 치료

김형태*, 조승호, 김민식, 박영학, 선동일, 유우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배경 : 기능성발성장애는 해부생리학적으로 정상적인 발성기관을 갖고 있으나 잘못된 사용에서 기인하며, 기질적 이상의 결과로서 후두 생물역학의 변화에 따른 잘못된 보상기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흔히 기능성발성장애는 음성치료로서 치료가 가능하나 음성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목적 : 음성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기능성 발성장애 환자에서 근전도를 이용한 경피적 보툴리눔독소치료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에서 기능성 발성장애 환자로 음성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었던 근긴장성 발성장애 2례, mutational falsetto 3례를 대상으로 근전도를 이용한 경피적 보툴리눔독소 주입술을 시행한 후 술후 음향학적, 음성학적 치료 결과를 평가하였다.

결과 : 근긴장성 발성장애의 경우 보툴리눔독소의 주입 후 성문하부압력의 감소와 H/N ratio 및 soft phonation index의 호전이 의의있게 나타났으며, mutational falsetto의 경우 기본주파수의 의의있는 감소를 나타냈다.

결론 : 기능성 발생장애의 경우 음성치료가 일차 치료방법이나 음성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발생장애의 생리학적 병인이 되는 후두근육에 정확히 근전도를 이용하여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하면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